

# 금쪽상담소 상담 일지



이름: 전세연

학번: 20235173

상담 일자: 10월 17일

## Q: 금쪽이의 고민이 무엇인가요?

A: 죽음이 무섭다. 친구와 작음 외삼촌을 떠나보내고 나니 주변 사람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그래서 죽음이 너무 두려워졌다.

## Q: 금쪽이에게 어떤 시를 추천해 주었나요?

그해 안개

— 그해 안개

— 원했던 건 그렇게 먼 곳으로 흘러가요  
다 흘러가요

안 보이는 것이 이토록 다정한걸요

복면한 사람 중에 당신이 있었어요

서로 알아보지 못했으므로  
기쁨이 자욱했던 것

다가갈수록 흐릿해지는 이것을  
누군가 진실이라 말하기도 했어요

암전

세계는 던져둔 위반에 시달렸으니

우리가 도모할 일은 이제 사라졌어요

그러니 안개가 숨겨줄 거라고 한번 믿어봐요

어리석은 일과  
우리는 우리를 벗어날 수 없지만

— 해석

3,4연: 그 사람과 함께했던 추억이 점점 흐려지는 상황

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 다행이었어요

다시 암전

그럴수록 아무도 모르는 먼 곳으로

하

당신

그립지 않아요

금쪽  
상담

금쪽상담소 소장(인)

7연: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할 일이 없어진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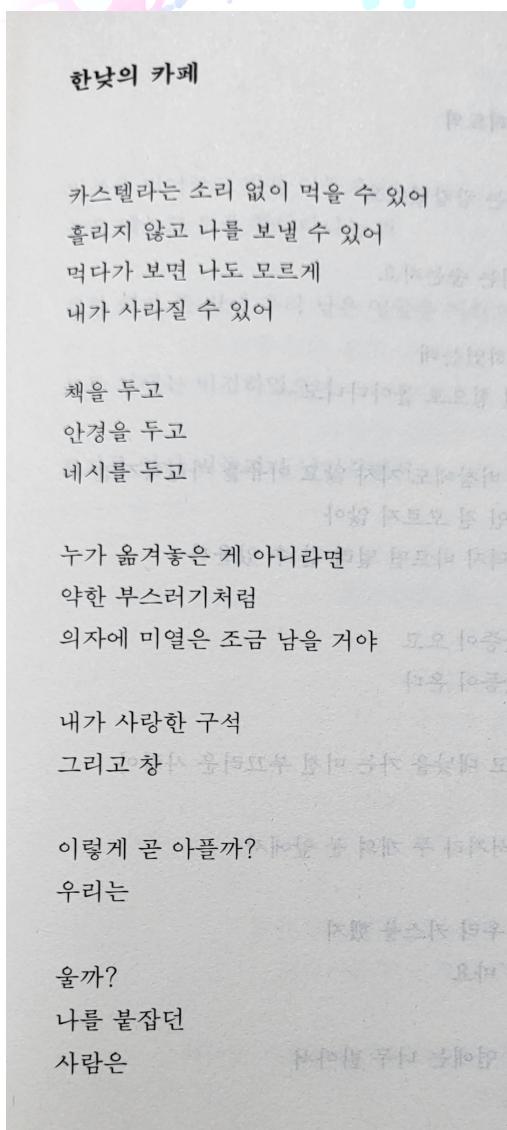
9연: 남은 사람들은 현실을 벗어날 수 없기에 어떻게든 살아가야 한다

13연: 소중한 사람이 없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한다.

### 선정이유

죽음이 두렵다고 하였는데, 추억을 가지고 결국 나아갈 길을 직시한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죽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추천하게 되었다.

### 한낮의 카페



### 해석

시에서 화자는 죽음 혹은 사라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없어지더라도 의자에 미열이 남을 것이라 말합니다. 화자의 말처럼, 누군가는 화자의 사라짐을

슬퍼하고 불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자에 남은 온기처럼 죽음에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 선정이유

우리가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기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결국 죽음을 이해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이 존재의 소멸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누군가의 죽음이 그 사람의 존재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